

수출규제 관련 중국동향(10.19~21)

1. 아베 면담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중국신문망(中国新闻网)은 10월 22일 한국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방문해 일본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고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인용 보도¹⁾
- o 11월 23일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현재 11월 한-일 정상 회담이 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일본 매체 보도를 인용
- o 청와대는 향후 한-일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임.
- 제일재경(第一财经)은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확정 소식을 전하며, 수출 제한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 등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고 보도²⁾
- o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은 24일 오전으로, 10~20분 정도로 예상되며, 회담에서 이낙연 총리는 일본 천황 즉위 축하와 태풍 피해에 대한 위로와 함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의사를 밝힐 예정
- o 이낙연 총리는 일본 정치인, 재계인사, 민중들과도 회담을 진행하여 일본 각계가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상을 개선할 예정임.
- 대당신책군(大唐申策君)은 한국 총리가 24일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필 친서를 전달하고 과거사 문제, 무역 분쟁, 지소미아 등과 관련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³⁾

1) 「韩国总理将访日会见安倍 日韩关系有望转圜?」, 『中国新闻网』(2019. 10. 21)

2) 「平均每天见10人! 安倍借日新天皇即位典礼展开马拉松式会晤, 日韩关系迎转机?」, 『第一财经』(2019. 10. 20)

3) 「日韩又有新情况, 韩国总统亲自给安倍写信, 放话要在今年解决问题」, 『大唐申策君』(2019. 10. 19)

- 현재의 한·일 관계에서 이낙연 총리의 방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자필 친서는 한국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며, 이로 인해 양국 긴장관계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

2. 지소미아 관련

□ [주요 언론 동향]

- 환구망(环球网)은 한국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지소미아 재협상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도⁴⁾
-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“지소미아는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” 고 발언, 이는 11월 지소미아 종료 전 일본과의 논의 상황에 근거해 이전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인용 보도

4) 「韩防长：不排除重新考虑韩日军情协定可能性」, 『环球网』(2019. 10. 19)